

##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오찬을 마치고 대개 좀 정리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밥상 앞에 놓고 길게 얘기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도시에 관한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 충실히 계승

그런데 묘한 기분 하나는 말씀드릴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대통령의 정권을 그때부터 계속 반대해 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유신헌법, 그리고 유신헌법 직전의 선거... 군대 있을 때인데 반대 투표했다가 군대에서 기합도 받았습니다. 공개투표인데 반대투표를 했으니 기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해 왔던 사람이지만, 그 시기에 이뤄졌던 많은 발전 내지 오늘날 발전의 토대가 됐던 그분의 업적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업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 와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도시에 관한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제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지요.

### 70년대 후반 균형발전사업 진작 이뤄졌더라면...

그때 그 사업이 진작 이뤄졌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이 좀 더 다른 모습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전 충청권이 많이 좋아졌겠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지리적으로 영호남도 수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것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이게 과연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냐, 싱가포르처럼 조그만 도시국가가 더 경쟁에 유리하니까 서울도 집적에 집적을 거듭해서 모을수록 경쟁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논리로서 또는 그 어떤 지표로서 분석해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는 물론이고 아마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분산이 유리하다는 결과였습니다만 그러나 논리 과정이 저희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 추진

그 하나는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년의 산업혁명, 수백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믿어도 될 만한 사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 나라들이 지금 다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란 것은 경쟁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경쟁력이라면 또는 혹시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가의 국민간 통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시기에 국가는 여러 가지 갈래로 분열의 전선들이 있었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있나

계층간 또는 연령간 이런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한국만의 분열전선이라고 하면 동서의 지역분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2002년 지자체 선거 때 수도권 규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수도권의 아주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방정치인들의 또한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두 개의 충돌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 장차 경제적으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가가 얼마만한 비용을 또 더 지불해야 될지 하는 것이 저는 무척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만의 특이한 안목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하고, 질서하고, 경제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국왕이 존경받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은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

면서 왕실이라는 존재가 역사 발전에 걸림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왕실에 대한 약간의 향수와 존경심이 남아 있는 것은 공동체 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정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 격차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버리는 결정을 했을 때 국가가 과연 하나로 통합된 국가로 갈 수 있는가, 당장 혁명이 나고 당장 나라가 분할되지는 않겠지만 그 갈등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 투쟁,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 **편중인사로 동서분열, 불균형발전 결과로 지방과 중앙 분열**

동서 균열은 인사 정책으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린 일이지만,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 한번 해 볼 수 있었습니까? 치안 총수를 한번 할 수 있었습니까? 검찰 총수를 한번 할 수 있었습니까? 수십 년 계속된 그런 편중 인사의 결과로 동서를 갈라놓고, 이제 불균형 발전의 결과로 지방과 중앙을 또 다시 분열시켜서 어떻게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민주주의 역량에 있어서 성숙해 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가 서로 달라도 수백 억 달러씩의 돈을, 수천억을 걸어나 수백 억 달러씩을—지금 유로지역—유로로 저개발 국가에, 그 유럽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 썩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안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 행정수도건설 30년간 지체, 민주주의 수십 년간 지체

혼자서 잘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할 것인가, 그들이 조성하는 불안 때문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딱 30년만 내다보면 모든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행정 수도 건설을 30년간 지체해 왔습니다.

저는 경제 성장의 업적은 인정하나, 민주주의를 수십 년간 지체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장기간 훈련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 성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전히 민주주의 다했으니까 민주주의 그만하고 이제 좀 강력하게 하라는 주문을 저도 많이 받았습시다만, 제게 그런 힘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수십 년간의 실천 과정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자유와 평등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지체시켜 놓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라놓고,

중앙과 수도를 또 갈라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 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도시로 인해 국민이 통합되기보다는 국민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주 지역에 LCD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초기이긴 하지만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도시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수도권에 수도권 정비법이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개별 산업 입지를 수도권 안에 승인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균형 발전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참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각서 쓰진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그와 같은 양해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역제 방식의 규제로는 수도권 합리적으로 발전 못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방적인 억제 방식의 규제로는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줄이되, 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을 편성해서 난개발을 막고 집중시킬 곳은 집중시키고 비울 곳은 비우고, 그리고 자연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게 이렇게 가자면 좀 더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규제의 틀을 가지고 수도권을 관리해 가야 비로소 수도권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는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에서 소극적이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수도권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낡은 규제의 틀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수도권은 스스로 계획과 스스로의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지방의석수 · 지방 출신 의원 많은 지금이 그래도 타협 가능한 기회**

같은 국가에서 같은 국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것인데, 지방에 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의석은 지방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직은 지방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지방과 수도권이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나 15년 지나서 서울 고등학교, 서울 출신이 모두 수도권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고등학교 출신은 지방 국회의원 하고, 그리고 수도권이 더 인구가 많아져서 과반수를 가져 버렸을 때 이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위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수도권

도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 **용산기지 이전한 80만평 녹지 서울이 혜택 누려**

수도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건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의 비용이죠. 국민의 비용으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이 용산기지는 서울 사람들의 큰 목소리로, 환경단체들의 큰 목소리로, 아마 무상으로 서울로 이양되거나 적어도 정부의 돈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서울이 그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용인하고 서울 한 복판에 80만 평짜리의 녹지를 만드는 것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참여정부가 그런 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서울은 그거 달라고 할 때 거저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협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국가적 통합을 위한, 그리고 먼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그와 같은 사고들을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서울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별로 받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서울서는 이런 모임을 할 자리, 기회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 시민들에게, 경기 도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 **수도권 자치단체장 전원 참석 못한 것은 아쉬워**

2004년 8월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일로 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인천 시장님 여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도 수도권인데 인천시장님 여기 참석해 주셔가지고 행정도시를 함께 축하해 주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인천은 별로 손해 볼 것 없다, 이런 것이 거나(일동 박수) 아니면 우리는 또 있다 이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자치단체장이 전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런 계기에 서로에게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원이 참석해서, 손해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석하고 이익 보는 사람들도 참석해서 여기에서 같이 서로 그 뜻을 모으고 박수 한번 받고 뒤에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방 와서 이번에 우리 한번 봐 달라, 이렇게 얘기해 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밥상 앞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대개 그냥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행정도시라고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높은 가치,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데, 오늘 이 계기를 우리가 잘 살려 나가고 또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